

“전두환 비자금 꼬리 잡았다... 추징금 전액 환수해야”

‘뉴스타파’가 전한 전재국 조세피난처 돈세탁 의혹

2004년 비자금 추징 여론 비등...유령회사 설립
전재국 “부친과 무관... 탈세목적 아니다” 발뺌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 씨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이 회사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옮기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은 그의 동생 전재용 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문제가 사회적으로 주목받던 와중이어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당시 수사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73억 원이 재용 씨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금을 추징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장남 전재국 씨는 2004년 7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최소한 6년 이상 회사를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다. 전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울 때 한국 주소를 기재하지 않고 싱가포르 소재의 법률사무소 PKWA가 중개한 것으로만 기록했다.

전씨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보름 뒤 ‘블루 아도니스’의 이사회에



전재국씨

서 단독 등기 이사로 선임됐다. 뉴스타파가 확보한 이사회 결의서 내부 자료를 보면 전씨는 등기이사로서의 주소를 그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분사 주소로 기재했다. 그가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는 자본금 5만 달러짜리 회사로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1달러짜리 주식 주만 발행한 전형적인 페이퍼컴퍼니였다.

예초 전씨는 2004년 9월 2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 지점에 페이퍼컴퍼니 이름의 계좌를 만들 계획이었다. 그러나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공증 서류가 버진아일랜드에서 싱가포르로 배송되는 과정에 분실되자 전씨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는 돈이 모두 잠겼고 전씨가 진노했다는 정황 증거도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당시 전씨가 모종의 계좌에 예치해 둔 돈(비자금)을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유령회사 명의의 아랍

은행 계좌로 급하게 이체하려 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전씨가 최소 6년 이상 회사를 보유하고 이와 연결된 해외은행 계좌로 자금을 옮겼다는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국제청과 검찰 등 당국이 파헤쳐야 할 부분인 셈이다.

사안의 성격상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는 상당히 충격적이다. 무엇보다 전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에서 탈세 의혹이 농후한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점에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추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버티고 있는 와중에서 장남 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은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감도높은 조사와 비자금 추징 여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청은 전재국씨를 포함해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명단에 대해서는 자체 역의탈세 추적 작업과 더불어 조사를 집중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역의탈세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성역없이 끝까지 추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재국 시공사 대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부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실이며 탈세나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확인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4차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근행 총괄 프로듀서, 김용진 대표, 최승호 프로듀서. /연합뉴스

“비자금 숨겨놓은 곳일 가능성 있다”

뉴스타파 일문일답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시공사 대표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고 공개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가 세워진 시기가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이 비자금은 의 의혹을 받은 시점임을 고려할 때

블루 아도니스 역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숨겨놓은 곳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취재 과정에서 발굴한 자료 중 전 재국 씨의 비자금 규모를 짐작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런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다만, 뉴스타파가 싱가포르 아랍은행을 방문해 취재했다. 일반 소매 영업은 하지 않는 전형적인 프라이빗뱅크(PB) 영업 은행이다. 큰 손들의 고객

들을 위주로 한다. 저회도 놀랐는데 그곳에 한국인 간부 직원이 두 명 있다. 한국인 큰 손들이 그 은행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지 않나 추정한다.

-2004년에도 검찰이 전재용씨의 73억원을 찾아놓고 결국 추징하지 못했다. 그 돈이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증거는 전혀 없다.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모른다. 여러 곳에 돈을 옮겨 놓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혹시 이 계좌도 그런 계좌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뉴스타파 최승호 앵커) 다만 그 시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둘째 아들에게 흘러간 점이 발견된 상황이다. 이 돈을 추징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했다. 그때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계좌를 만든 것이다. 또 그 과정에서 설립대행사가 서류를 분실해 전재국 씨가 화가 났다. 이런 내용을 보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근행PD) 73억원이 어디로 갔는지는 검찰이 알 것이다.

-전씨가 이 회사를 최소한 6년 이상 보유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연합뉴스

“모든 역량 동원 조세정의 확립해야”

시민사회·누리꾼 반응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4)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사실을 보도하자 시민사회와 누리꾼들이 일제히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전두환 일가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빼돌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과 함께 “추징금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전 전 대통령은 제임 시절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수사 당국이 밝혀낸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며 “이번에 의혹을 규명할

단서가 드러난 만큼 호화 생활로 국민의 비난을 받는 전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세부조사 등 정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조세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터넷과 SNS 공간에서도 비난은 뜨거웠다. 누리꾼 ‘이쁜이’는 “전두환 일가가 가진 돈은 국민의 세금”이라며 “코흘리개 아이들도 ‘평화의 땀’ 성금을 다 냈다. 전씨 일가를 가만뒀선 안된다”고 분개했다.

트위터 사용자 ‘Hurphist’는 “전 재국이 운영하는 출판사인 시공사가 있는 땅도 사실은 전두환이 국가에 반환하기로 했던 재산이지만 1991년 장남과 차남에게 공동 증여를 해버렸다”며 “불법 공여받은 자녀는 계속 탈세 중”이라고 주장했다.

“전두환이 29만원으로 평생 호의 호식할 수 있는 비밀인 듯하다.”(누리꾼 doax), “29만원 재테크의 달인 가족.”(dym* ***) , “사돈의 팔촌까지 재산을 몰수하고 29만원만 주자.”(youk* ***) 등 전 전 대통령의 ‘전 재산 29만원’ 발언을 이변 발표와 연결해 비꼬는 글이 많았다.

트위터 사용자 ‘100HyeRyun’은 “노태우의 추징금은 그대로 거의 회수되었다. 이번에는 제발 전두환의 비자금을 밝혀서 추징금을 회수해 보자”고 말했다. ‘AhLisa87’은 “국제청의 조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kyung0’는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한다”며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철저 조사, 불법 엄중 처벌”

輿野 한목소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일 독립인터넷 언론인 뉴스타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설립 의혹을 주장한 데 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제청이 들여다보면 (탈세) 범사가 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것이 있을 것”이라며 조세 당국의 성역 없는 조사를 주문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관계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하고, 사실일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언제 페이퍼컴퍼니가 개설됐고 운영자금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철저히 밝혀 추락한 정의를 되살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 씨는 국민 앞에 나와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미납한 추징금이 국가재산으로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것만이 전 전 대통령과 가족이 국민에게 지고 있는 마지막 부채를 갚고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웃자니 그렇고... 울자니 그렇다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6월호
5월 25일 발매

키농샤
키농샤
키농샤

키농샤
키농샤
키농샤

커버스토리
**메이드인광주
브랜드공연
성공해법은?**
실제 거들하는 이유와 타지역 성공 브랜드 분석

기획특집
멋스럽고 똑똑한 한국 사람의 집,
한옥을 만나
한옥의 발견
한옥의 미학과 과학 집중 조명

스페셜 인터뷰
영화감독으로 '인생 3막' 올린
영화인 김동호의 꿈과 삶

마주앉은 책과 삶
건축가 승효상
비움으로 가득 채운 사유의 건축

이달의작가
소설가 공선옥
“삶이 문학과, 문학이 삶이다”

세계미술관 기행
죽기전에 꼭 가봐야 할 명품미술관
뉴욕현대미술관 MoMA

문화역사기행
부여 낙화암
무심히 흐르는 백마강에
꽃 지듯 흩날린 백제의 생명들

행복한 컬렉터
해명전통다례교육원
장문자 원장이 수백 점의
다기에 담은 차사랑

리빙 & 스타일
당신의 아웃도어 스타일 믿을 만한가?
애호가·전문가의 네일아트 예찬 “빠져 나오기 힘든 매혹”